



hananimuibetop.org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존재할 때에만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 [부록 8a: 성전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법](#)
- [부록 8b: 제사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이 페이지\)](#)
- [부록 8c: 성경의 절기들 — 오늘날 어느 것도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d: 정결 법 — 성전 없이는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e: 십일조와 첫 열매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f: 성찬 예식 — 예수의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이었다](#)
- [부록 8g: 나실인과 서원 법 —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
- [부록 8h: 성전과 관련된 부분적·상징적 순종](#)
- [부록 8i: 십자가와 성전](#)

율법이 실제로 요구한 것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 가운데서, 제사만큼 정밀하게 규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부를 규정하셨습니다. 제물의 종류와 나이, 상태, 피의 처리 방식, 제단의 위치,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봉사 중에 입어야 할 의복까지도 상세히 정하셨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상번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는 개인적 창의성이나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모형을 따랐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할 것이며... 제단은 여기에 있어야 하고... 피는 저기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수정 가능한 제안이 아니라, 정확한 순종의 체계입니다.

제사는 결코 단순히 “하나님께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전 뜰에서만 행해지는 거룩한 행위였고(레위기 17:3-5; 신명기 12:5-6; 신명기 12:11-14), 아론의 계통에서 나온 성별된 제사장들만이 수행할 수 있었으며(출애굽기 28:1; 출애굽기 29:9; 레위기 1:5; 민수기 18:7), 의식적 정결 상태에서만 허용되었습니다(레위기 7:19-21; 레위기 22:2-6). 예배자는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고, 집례자를 선택하지도 않았으며,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디에 바를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체계는 하나님의 설계였고, 순종은 그 설계의 모든 세부를 존중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출애굽기 25:40; 출애굽기 26:30; 레위기 10:1-3; 신명기 12:32).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계명들에 순종했는가

성전이 서 있던 동안, 이스라엘은 이 법들을 명령된 그대로 지켰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아, 에스라, 느헤미야의 세대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제단을 대체하지 않았고, 아무도 새로운 의식을 즉흥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며, 아무도 가정이나 지역 모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왕들조차도 —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도 — 제사장에게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체계를 변경하려 할 때마다 —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이 아닌 자가 거룩한 직무를 맡도록 허용했을 때마다 —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시고 종종 징계를 내리셨음을 반복해서 보여 줍니다(사무엘상 13:8-14; 역대하 26:16-21). 신실함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분이 택하신 장소에서, 그분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계명들은 오늘날 지킬 수 없는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 제사 제도 전체는 수행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으며, 지성소도 없고, 성별된 제사장직도 없으며, 정결의 확립된 체계도 없고,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도 이 땅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없이는 “최선을 다해 지킨다”거나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조건들이 사라졌을 때, 순종은 불가능해집니다 — 우리가 순종하기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특정한 계명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중단에 대해 다니엘이 예언한 것

성경 자체는 제사들이 중단될 것을 미리 말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폐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제사와 예물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지만(다니엘 9:27), 그 원인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성과 성소가 대적들에 의해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니엘 9:26). 다니엘 12:11에서도 그는 상번제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법의 취소가 아니라 폭력과 황폐로 인한 제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어느 구절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들을 변경하셨다는 암시는 없습니다. 제사들은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며, 이는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는 율법 자체는 손대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 택하신 장소만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상징적이거나 창작된 제사의 오류

많은 메시아닉 단체들은 제사 제도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열고 그것을 “제사”라고 부릅니다. 모임에서 향을 피우고, 의식을 재연하며, 예물을 흔들고, 연출을 통해 “토라를 존중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적 제사”, “영적 제사”, “미래 성전을 위한 리허설”과 같은 가르침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종교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순종은 아닙니다 — 그것은 발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결코 상징적 제사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대체물을 받아들이신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성전 밖에서 시도할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전 없이 이러한 명령들을 모방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우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정밀함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성전을 기다린다

제사 제도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폐지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낸 상징적 행위나 영적 은유로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곳에도 제사에 관한 계명들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가장 작은 획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모든 부분이 영원함을 확증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7-18). 하늘과 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계명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제사장직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임을 반복해서 약속하셨습니다(출애굽기 29:9; 민수기 25:13). 율법은 제사 규례들을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부릅니다(예: 레위기 16:34; 레위기 23:14; 레위기 23:21; 레위기 23:31; 레위기 23:41). 어느 선지자도 이 계명들의 종말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이 공경하고, 그분의 집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될 미래를 말합니다(이사야 56:7). 이 구절은 예수께서도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시기 위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마가복음 11:17).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은 성전의 종말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더럽히는 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이 이 제사들을 폐지한 적이 없고, 예수께서도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선지자들도 그 취소를 가르친 적이 없기에, 우리는 성경이 허락하는 결론만을 내립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오늘날 지킬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요구하셨던 요소들 — 성전, 제사장직, 제단, 정결 체계 — 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신 것을 그분이 회복하시기 전까지, 올바른 태도는 모방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단하신 것을 재현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옮기지도 않고, 장소를 바꾸지도 않으며, 의식을 변경하거나 상징적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인정하고, 그 완전함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기를 거부합니다(신명기 4:2). 그보다 적은 것은 부분적 순종이며,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